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103 in E-flat major, Hob. I:103, "Drumroll" 작곡가: Joseph Haydn (1732–1809)
작곡 시기: 1794–1795년
초연: 1795년 3월 2일, 런던 King's Theatre, Haymarket
장르: 고전주의 교향곡, 네 악장
조성: E-flat major

IMSLP: Symphony No.103 in E-flat major, Hob.I:103 (Haydn, Joseph)

Wikipedia: Symphony No. 103 (Haydn)

Joseph Haydn의 Symphony No. 103 in E-flat major, Hob. I:103, "Drumroll"은 1794–1795년 런던 체류 말기에 쓴 네 악장 교향곡이다 . 이 글은 관현악 전곡을 다루며, I. Adagio-Allegro con spirito, II. Andante più tosto allegretto, III. Menuet-Trio, IV. Finale. Allegro con spirito 순서로 이어지는 구조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첫 악장의 팀파니 도입, 둘째 악장의 이중 변주, 셋째 악장의 미뉴에트와 트리오, 마지막 악장의 호른 신호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런던 교향곡의 음향과 형식을 만든다.

작곡과 초연

이 작품은 Haydn의 열두 런던 교향곡 가운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해당한다. 1794–1795년 두 번째 런던
체류 때 작곡되었고 , 1795년 3월 2일 Haymarket의 King's Theatre에서 처음 연주되었다 . Bremen의
해설은 Haydn이 이 공연을 이끌었다고 설명하며, IMSLP의 공연 기록에는 G. B. Viotti와 Haydn이 함께 적혀 있어 지휘 역할의 세부 분담은 자료마다 다르게 남아 있다.

초연 직후의 Morning Chronicle 평은 느린 서주가 청중의 주의를 끌었고 Allegro가 매혹적이었으며 , 둘째 악장이 앙코르되었다고 전한다. 이 기록은 한 번의 공개 공연에 대한 동시대 반응으로서 , 작품이 처음부터 네 악장 전체의 대비와 극장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들렸다는 점을 보여 준다.

출판 정보와 자료

IMSLP는 1799년 Offenbach의 Johann André가 파트보를 출판했고, 1802년 무렵 Paris의 Pleyel이 총보를 냈다고 기록한다. Pleyel 총보는 현존하는 초기 완전 총보 가운데 하나로 소개되며, André 파트보와는 별도의 출판 단계에 해당한다. 19세기 Breitkopf·Peters 계열 인쇄물은 이 초기 전승을 다시 유통시켰다 .

20세기에는 Howard Chandler Robbins Landon이 편집한 Universal Edition 전집과 Hubert Unverricht 계열의 Haydn Complete Edition, 최근의 Henle 연구판이 서로 다른 편집 원칙으로 작품을 제시한다. Henle 연구판은 자필과 초기 사본의 팀파니 표기를 논의하며, 자필에 롤의 세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피날레 끝부분의 몇 마디가 출판 전에 삭제되었다는 기록도 있어, 악보의 판본에 따라 종결부가 달라질 수 있다

.

소요 시간

Universal Edition, IMSLP와 여러 기관 안내는 전곡을 약 30분으로 제시하고, 실제 녹음은 반복과 템포에
따라 대체로 28–32분 범위에 놓인다. 둘째 악장에는 일곱 개의 반복 지시가 있어 이를 얼마나 연주하는지가
전체 시간과 악장의 규모를 바꾼다. 전곡 약 30분이라는 기준과 반복 선택의 관계를 함께 보아야 악장별
시간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편성

관현악: 플루트 1–2, 오보에 1–2, 클라리넷 1–2, 바순 1–2, 호른 1–2, 트럼펫 1–2, 팀파니, 현악.
이조 표기: Universal Edition은 클라리넷을 B-flat, 호른을 E-flat 또는 C, 트럼펫을 E-flat 또는 C로 표시한다

.

이조 표기는 파트가 읽는 조성을 나타내며 악기군의 수를 늘리는 표기가 아니다. IMSLP의 기본 목록과 현대 전집의 상세 표기는 두 플루트와 두 클라리넷을 포함한 같은 악기군을 가리킨다. 런던의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포르테피아노 사용 가능성은 당시 공연 환경의 문제로 남아 있으며, 모든 판본이 별도의 독립 키보드 파트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네 악장의 구조

I. Adagio-Allegro con spirito는 팀파니의 짧은 롤과 Intrada 표기로 시작한다. 자필에는 롤의 세기가
적혀 있지 않고, 초기 사본과 판본마다 포르티시모 또는 크레셴도 –디미누엔도 같은 지시가 달라진다. 롤
뒤에는 첼로, 콘트라베이스와 바순의 어두운 선율이 이어지며, 여러 해설이 이를 Dies irae 를 연상시키는
장송풍으로 설명한다. 이 연상은 선율의 직접 인용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느린 서주의 재료는 6/8 Allegro의 활기찬 움직임 속으로 흡수되고, 악장 말미에 다시 나타난 뒤 춤곡 같은 변형으로 정리된다. 전체 형식은 느린 서주가 붙은 소나타 형식으로 설명된다.

II. Andante più tosto allegretto는 C단조와 C장조의 두 주제가 교대하는 이중 변주곡이다 . Hyperion은 두 주제를 크로아티아 민요 계열로 설명한다. 정확한 채록 원전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작품에는 민속적
귀속으로만 남는다. 장조 변주에서는 F음이 F-sharp로 바뀌고, 바이올린이 이끄는 변주와 행진풍의 변형이 이어진다. 일곱 개의 반복 지시는 악장의 호흡과 길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공연 선택이며, 당시 청중이 이
악장을 앙코르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III. Menuet-Trio는 E-flat 장조의 미뉴에트와 대비되는 트리오로 구성된다. 미뉴에트의 당당한 리듬에는 오스트리아 춤과 요들의 몸짓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있고, 트리오에서는 클라리넷이 현악과 다른 색채의 선율을 맡는다. 동시대 평이 이 악장을 장난스럽고 달콤하다고 묘사했다는 기록은 작곡가가 붙인 표제가

아니라 당시 수용의 한 표현이다.

IV. Finale. Allegro con spirito는 호른 신호와 민속풍 선율을 출발점으로 삼아 E-flat 장조의 결말로 나아간다. 주제의 회귀와 전개가 빠르게 교대해 이 악장을 소나타 -론도적 피날레로 부르는 분석이 있지만, 판본과 분석 관습에 따라 소나타 형식이라는 명칭도 사용된다. 출판 전에 삭제된 몇 마디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마지막 코다의 길이와 종결 효과가 달라진다.

팀파니 롤과 반복을 둘러싼 연주 자료

첫 팀파니 롤은 악보에 solo 와 Intrada 가 적혀 있지만 명확한 동적 지시가 없다는 점 때문에 녹음마다
다르게 다뤄진다. The Classical Source의 Roger Norrington 평은 카덴차처럼 확장하지 않고
포르티시모에서 디미누엔도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롤을 택한 점을 기록한다. 반대로 Harry Christophers의 2022년 녹음은 팀파니스트가 자유로운 카덴차를 연주하는 선택을 취했으며, 같은 효과를 서주가 되돌아오는 지점에도 적용한 점이 비평의 대상이 되었다. 이 차이는 Intrada 를 해석하는 범위를 보여 준다.

둘째 악장의 일곱 반복은 녹음의 시간과 성격을 크게 바꾼다. MusicWeb의 역사적 녹음 조사는 1935년 Vladimir Golschmann의 Saint Louis Symphony Orchestra 녹음이 모든 반복을 포함하면서도 선율의 활력을 유지한다고 평가하고, 1959년 Igor Markevitch와 Lamoureux Orchestra의 녹음은 빠른 템포와 명료한 팀파니 음향으로 악보의 반복음형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반복을 줄인 녹음과 모두 연주한 녹음은 같은 악장 구조를 서로 다른 시간감으로 제시한다.

주요 레코딩과 실연

Vladimir Golschmann / Saint Louis Symphony Orchestra (1935): MusicWeb의
역사적 녹음 조사는 이 연주를 작품의 이른 녹음으로 제시한다. 78회전 녹음에서도 둘째 악장의
반복을 모두 연주했고, 미뉴에트의 장중함과 피날레의 활력을 함께 살렸다고 평가한다.
Igor Markevitch / Lamoureux Orchestra (Philips A 02041 L, 1959): 같은 조사에서 Markevitch는 빠른 Allegro와 가벼운 피아노 구절, 명료한 강주를 대비시킨다 . 팀파니가 명시된
반복음형을 분명하게 들려준다는 평가는 첫머리 롤을 실제로 어떻게 들을지와 연결된다.
Ivor Bolton / Mozarteum Orchestra Salzburg (Oehms OC421, 2011): MusicWeb의 음반 평은 29분 42초의 녹음에서 첫 팀파니 롤을 확장된 카덴차처럼 처리한 점과, Andante più tosto allegretto를 빠르지만 표제에 맞는 속도로 진행한 점을 기록한다. 디지털 녹음은
오케스트라를 크게 들려주며, 평자는 그 규모도 후기 런던 교향곡의 설계와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Harry Christophers / Handel and Haydn Society (CORO COR 16192, 2022):
Classical Music의 평은 팀파니 도입을 카덴차로 처리한 해석과, 서주가 끝부분에서 돌아올 때 같은
선택을 반복한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평은 자필의 열린 지시와 서주의 재현이 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녹음 사례로 보여 준다.

주요 자료

Hyperion, Haydn Symphony No. 103 해설: 네 악장의 표제, 팀파니 롤, 이중 변주와 민속적 귀속, 미뉴에트와 피날레의 음악적 특징을 설명한다.

Universal Edition, 103. Symphonie: Robbins Landon 비평판, 편성의 이조 표기와 약 30분의 소요 시간을 안내한다.
G. Henle Verlag, Symphony E-flat major Hob. I:103: 현대 연구판의 편집 정보와 자필 팀파니 지시의 불확실성을 제공한다.
Die Deutsche Kammerphilharmonie Bremen, Haydn Vol. I: 런던 초연 맥락, 동시대 Morning Chronicle 반응과 서주 ·악장 성격을 소개한다.
Fort Collins Symphony, Haydn Symphony No. 103: 런던 교향곡의 위치, 편성, 네 악장의 개요와 전곡 시간을 보완한다.
MusicWeb International, Pioneering Haydn On Record: Symphony 103: 1935년 이후 역사적 녹음, 팀파니 롤과 반복 선택, 1959년 Markevitch와 2011년 Bolton 녹음의 연주 성격을 비교한다. The Classical Source, Haydn London Symphonies / Roger Norrington: 103번의 팀파니 롤, Andante의 속도, 트리오의 클라리넷과 판본별 생략을 비평한다.
Classical Music, Haydn Theresienmesse; Symphony No. 103: 2022년 Christophers 녹음의
팀파니 카덴차와 서주 재현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다.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3:50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3:50 UTC by 안준영